

탈모(脫毛)에 대한 조사

요즘 같이 찬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 머리를 감거나 빗질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에 신경이 쓰이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탈모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탈모는 전문가들이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한 병증으로서의 탈모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 의미에서의 탈모와는 별개로 우리 국민 중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증상(탈모)으로 고민 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본인의 탈모 증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탈모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봤는지에 대해 한국갤럽이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1월 1~18일(18일간)
2. 표본추출: 2단계 집락 층화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
5.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성인 남성 네 명 중 한 명(26%)은 ‘탈모 증상 있다’ - 여성도 18%로 적지 않아
- 탈모인의 68%, ‘친가/외가 중 탈모 겪는 가족 있다’ - 비탈모인은 14%
- 탈모 증상 있는 사람 절반(52%)은 ‘심각하다’고 느껴
-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모발관리제품 구입’ 30% - ‘병원 진료’는 11%
- 탈모치료제 브랜드로는 ‘판시달’(9%)과 ‘댕기머리’(9%) 가장 많이 떠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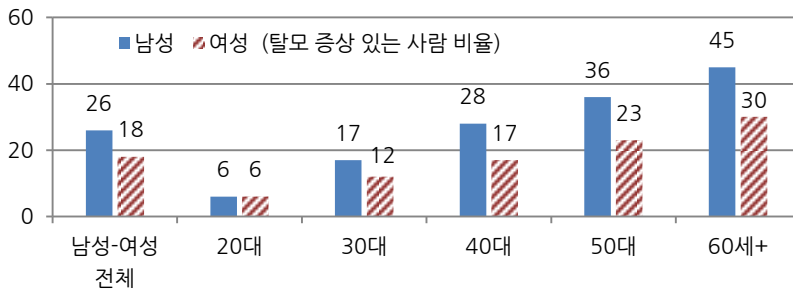
성인 남성 네 명 중 한 명(26%)은 '탈모 증상 있다' - 여성도 18%로 적지 않아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에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머리카락 수가 점점 줄어드는 증상(탈모)이 있는지 물은 결과, 22%가 현재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탈모 증상은 성인 남성의 26%가 겪고 있으며, 여성은 18%로 남성보다 적었다. 특히 고연령일수록 늘어 20대 남녀에서는 6%에 불과했지만 60세 이상 남성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5%, 60세 이상 여성에서는 30%에 달했다.

2013년 11월 현재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만 19세 이상은 약 4,100만 명, 이 중에서 탈모 증상을 겪는 사람은 대략 9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 현재 본인의 탈모 증상 여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 (%)	겪고 있지 않다 (%)
전체		1,501	22	78
성별	남성	744	26	74
	여성	757	18	82
성/연령별	남 19~29세	141	6	94
	30대	153	17	83
	40대	166	28	72
	50대	146	36	64
	60세 이상	137	45	55
	여 19~29세	129	6	94
	30대	147	12	88
	40대	160	17	83
	50대	145	23	77
	60세 이상	177	30	70

질문) '탈모'란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머리카락 수가 점점 줄어드는 증상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런 탈모 증상을 겪고 계십니까?

탈모인의 68%, '친가/외가 중 탈모 겪는 가족 있다' - 비탈모인은 14%

본인을 제외하고 친가나 외가 가족 중 탈모 증상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묻은 결과, 26%가 '탈모 겪는 가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본인 탈모 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본인에게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탈모인 335명) 중 68%가 친가나 외가에 본인 이외에도 탈모를 겪는 가족이 있다고 답한 반면, 본인에게 탈모 증상이 없는 사람(비탈모인 1,166명) 중에서는 그 비율이 14%에 그쳤다.

탈모는 유전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 스트레스, 환경 오염, 서구화된 식습관 또한 탈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본인 이외 친가/외가 가족의 탈모 증상 여부 (단위: %)

구분		표본수(명)	친가/외가 가족 중에 탈모 겪는 사람 있다	없다
전체		1,501	26	74
성별	남성	744	28	72
	여성	757	24	76
성/연령별	남 19~29세	141	20	80
	30대	153	23	77
	40대	166	31	69
	50대	146	33	67
	60세 이상	137	31	69
	여 19~29세	129	14	86
	30대	147	25	75
	40대	160	20	80
	50대	145	25	75
	60세 이상	177	30	70
본인 탈모 여부	탈모 있다	335	68	32
	탈모 없다	1,166	14	86

질문) 혹시 귀하 본인의 친가나 외가 가족 중에 귀하를 제외하고 탈모를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탈모 증상 있는 사람 절반(52%)은 '심각하다'고 느껴

현재 탈모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335명에게 탈모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묻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8%, '어느 정도 심각하다' 44%로, 탈모인 중 52%가 탈모 증상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42%, '전혀 심각하지 않다' 6%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두 48%였다. 즉,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 절반 가량이 탈모를 심각하게 여겼다.

탈모 증상 심각성 인식은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연령별로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 본인 탈모 증상 심각성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매우+어느 정도) 심각하다	(전혀+별로) 심각하지 않다
탈모인 전체		335	52	48
성별	남성	196	53	47
	여성	138	51	49
연령별	19~29세	16	35	65
	30대	44	51	49
	40대	74	54	46
	50대	86	51	49
	60세 이상	114	55	45

질문) 현재 귀하의 탈모 증상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모발관리제품 구입' 30% - '병원 진료'는 11%

탈모 증상이 있는 335명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나 방법을 취했는지 묻은 결과(복수 응답), 43%가 '아무런 조치/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샴푸, 비누 등 모발관리제품 구입'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 치료요법/건강보조식품 복용' 15%, '약국에서 탈모치료제 구입' 14%, '병원 진료' 1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51%), 고연령일수록(50대 48%, 60세 이상 51%), 그리고 현재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40%는 탈모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해 탈모를 노화나 가족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거나 반드시 완화/개선해야 할 병증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 (복수응답,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아무 조치/방법 취하지 않음	샴푸, 비누 등 모발 관리제품 구입	민간치료 요법/건강 보조식품 복용	약국에서 탈모치료제 구입	병원 진료	미용실 두피, 탈모 관리
탈모인 전체		335	43	30	15	14	11	6
성별	남성	196	51	25	13	13	10	6
	여성	138	32	37	17	14	12	7
연령별	19~29세	16	30	19	12	12	34	0
	30대	44	36	35	20	17	18	8
	40대	74	32	46	16	12	7	10
	50대	86	48	28	8	7	2	8
	60세 이상	114	51	21	18	18	13	3
탈모 심각성	심각하다	174	40	28	20	15	14	7
	그렇지 않다	161	46	33	9	11	8	5

질문) 귀하는 지금까지 탈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방법을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탈모 증상 완화를 위해 해 보신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5 개 보기 제시, 복수응답)
 - 병원 진료 / 약국에서 탈모치료제 구입 / 미용실에서 두피, 탈모 관리 /
 샴푸, 비누 등 모발관리제품 사용 / 민간치료요법 시도나 건강보조식품 복용

탈모치료제 브랜드로는 '판시달'(9%)과 '땡기머리'(9%) 가장 많이 떠올려

탈모 증상이 있는 335명에게 탈모치료제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지 물은 결과(한 개만 자유응답), '판시달'(9%)과 '땡기머리'(9%)가 가장 많이 응답됐고 그 다음으로는 '하이모'(4%), '마이녹실'(4%), '난다모'(2%), '미녹시딜'(2%), '프로페시아'(2%) 등이 있었다.

탈모인의 절반이 넘는 62%는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다/모르겠다'고 답했으며, 브랜드를 떠올린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사실상 탈모치료제가 아니라 모발관리제품 브랜드인 '땡기머리'와 '하이모'를 답했다. 이로 미루어 현재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도 탈모치료제의 의미나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 수준은 별로 높지 않았다.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